



완산소방서, 지역민 보호 넘는 특별한 감동 지원

완산소방서가 화재로 인해 생활 터전을 잃은 가정에 세보 급자립 마련해 훈훈함을 주고 있다.
김장수 전주완산소방서장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12시경 거주하던 주택에서 화재(주택 일부 소실 피해)가 발생 했었고 이에 소방서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을 위해 3박 4일의 임시거처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여기에 김장수 전주완산소방서장과 지휘조사팀장 등 4명은 피해주민을 찾아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긴급구호품 등 격려품을 전달했다.
전주완산소방서는 화재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빠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임시거처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관기관을 통한 심리지원, 119행복하우스, 임대아파트, 안심하우스 건축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덕진소방서, '꽃심119소년단' 온정의 손길 내밀어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철철) 소속 한국119청소년단 '꽃심119소년단'이 지역사회에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다.
전주꽃심119소년단은 지난 19일 덕진구 송천동 지역에서 이웃사랑 선금기탁과 함께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열어, 연탄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연탄 600장을 전달했다.
전주덕진소방서에서 활동 중인 전주꽃심119소년단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소방 안전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1월 19일에는 단원들이 직접 모은 선금으로 '소아암아동 치료비 기탁, 사랑의 급식 나눔' 행사 등 지역사회 사랑 나눔으로 모범이 되고 있다. /김영태 기자



한국나눔연맹, 김제시에 백미 10kg 1000포 기부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사무총장 안천웅)은 19일 관내 저소득 가정에 전달해 달라며 백미 10kg 1,000포를 김제시에 기탁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허창영 (사)한국나눔연맹 복지팀장은 "물가상승과 한파로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을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백미를 기탁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나눔과 온정의 손길을 전하는 (사)한국나눔연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성주 시장은 "모두가 함께하는 겨울에 온정이 담긴 큰 선물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나눔연맹은 1992년 2월 개관된 단체로 정부의 지원 없이 독자노력과 결실아동 무료급식사업과 생활여건 개선사업, 세계 지구촌 빈민 지원사업 등에 앞장서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농촌지도자 김제시연합회, 500만원 장학금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9일 (사)한국농촌지도자 김제시연합회 최승일 회장과 임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5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기탁식을 가졌다.
이날 기탁식에는 정성주 김제시장, 최승일 회장 박희곤·신필용 부회장 등 임원과 농촌지원과 이광수 과장, 인력육성 이윤아 팀장 등이 함께했다.
(사)한국농촌지도자 김제시연합회에서는 주변 소외계층을 위한 선금 기탁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영농폐기물 수거와 수도작 품종별 시험포장을 회원들이 함께 경작한 수익금으로 더욱 뜻깊은 나눔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날 기탁식에서 최승일 회장은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청소년들이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성장하는 체육회 만들 것”

손충호 제2대 순창군체육회장 당선

손충호(58)씨가 제2대 순창군 체육회장에 당선됐다.
손 당선인은 19일 순창군 향토회관에서 열린 제2대 순창군 체육회장 선거에서 유효투표수 73표 가운데 36표를 획득하여 향후 4년간 순창군 체육회를 이끌게 됐다.
선거결과를 전체 선거인단 78명이 가운데 기호 1번 최형원 후보가 30표, 기호 2번 우장식 후보가 7표, 기호 3번 손충호 후보가 36표를 획득해 손씨가 당선됐다.

손충호 당선인은 “저를 지지해주시는 선거인분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순창군체육회의 발전과 체육단체 및 선수들의 지원 확대는 물론 권익보호를 위해 모든 역량과 노력을 다해 성장하는 순창군체육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이번 제2대 순창군 체육회장 재선거는 지난해 경합 후보가 없어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됐던 양영수 제1대 체육 회장에 대해 순창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순창군체육회장으로서 자격이 맞지 않자 등록 무효 결정에 따라 재선거로 치러졌다.

/순창=이양원기자



무주군청 선교회·무주군 상록회, 이웃사랑 실천 귀감

설명절을 앞두고 장학금과 선금 기탁으로 무주군 지역사회가 훈훈해 지고 있다.
무주군청 선교회는 19일 설명절을 앞둔 지역 소외계층에 전달해 달라며 선금 2백만 원을 기탁했다.
이종현 회장 등 회원 일행은 이날 군수실을 찾아 “설명절을 맞아 지역내 취약계층 주민들이 잘 보내실 수 있도록 작으나마 선금을 마련하게 됐다”라며 “이분들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기탁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무주군상록회가 미래세대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무주군교육발전정책제단에 장학금 1백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무주군상록회 이용기 회장은 “미래의 주인공인 무주



청소년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무주군 상록회는 무주군 교육발전과 미래세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무주군상록회는 군농업기술센터 지도·연구직 공무원 모임으로 60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황인홍 군수(무주군교육발전정책제단 이사장)는 “미래세대들을 위한 장학금 기탁과 선교회원들의 정성에 너무 감사”라며 “무주를 이끌어갈 무주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과 소외계층에게도 아낌없는 지원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다모아종합건설, 적십자사 고액기부자클럽 가입

다모아종합건설이 RCHC(대한적십자사 고액기부자클럽)에 19일 가입식을 진행했다.
RCHC(대한적십자사 고액기부자클럽)란, 대한적십자사에 1억 이상 기부를 약속한 개인·법인 모임으로 다모아종합건설은 전북 16호 신규 가입자이다.
다모아종합건설은 전북 향토 종합건설회사로서 토목·건축·조경공사에 정평이 나있는 기업이며, 사회공헌활동과 기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기운 다모아종합건설 대표이사는 “평소 사회환원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적십자고액기부자클럽 가입을 통해 기부를 결심했다”며, “기부한 금액이 전주시 내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잘 사용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다모아종합건설은 RCHC(대한적십자사 고액기부자클럽)를 통해 전주시에 설립이 은누리상품권(2,000만 원)을 전달하였으며, 매년 정기적 기부를 약속하였다.
/최이영 기자



완산회, 2023년 설맞이 '사랑의 나눔' 전달

완산구 관내 주요 유관기관 및 단체·기업체 대표로 구성된 완산회가 지난 18일 완산구청장실에서 2023년 설맞이 사랑의 나눔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은 완산회 회원들이 직접 복지시설을 찾아가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관내 복지 유관기관인 전주중합사회복지관, 전주사대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의뢰를 통해 발굴했다.
전달식에는 이계순 완산회장 및 임원진 관내 복지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계순 완산회장은 전달식에서 “민족대명절 설날을 맞아 따뜻한 명절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관내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완산회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건협 전북지부, 지역주민 설맞이 후원금 전달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본부장 김민수 이하 '건협 전북지부')는 2023년 설을 맞아 전주사지원봉사센터에 후원금 200백만 원을 19일 전달했다.
이날 건협 전북지부 김민수 본부장 전주사지원봉사센터 황의욱 이사장, 박정서 센터장 등 양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후원금은 물가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후원금은 관내 지역주민에 생필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건협 전북지부 김민수 본부장은 “다가오는 설에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고 지원하는 데 적극 앞장 서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김주형 다슬아동병원장, 전북대병원에 발전기금

전주다슬아동병원 김주형 원장이 지역아동의 건강증진과 전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의 발전을 위해 발전후원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전달식은 본관 온고을홀에서 유희철 병원장과 조대선 교육인재개발실장, 김민선 소아청소년과 과장, 김진우 사무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후원금을 기부한 전주다슬아동병원 김주형 원장은 전북대병원 방문으로 전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전라북도 의사회 회장, 대한아사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 원장은 “전국적으로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하는 전공의 비롯한 의료 인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아동들의 원활한 치료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거점병원인 전북대병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전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와 지역 의료계와의 상생 발전을 통해 지역 아동들의 건강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희철 병원장은 “허리전문병원을 직접 운영하면서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선한 기부를 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기부의 선한 의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과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지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발전을 위해 지역 병의원과 상호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고 진료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장애인복지관, 설 명절 복(福)꾸러미 전달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관장 강병은)은 도내 저소득 장애인 140가정에 정서적 소외감 완화를 위해 설 명절 복(福)꾸러미를 19일 전달했다.
복(福)꾸러미는 '복수 2종, 우렁강편장, 사골곰탕, 떡국떡' 등이 들어있으며 (주)제이온, 농업회사법인 (주)구산선만, 연탄은행 등에서 기부해 준 후원품으로 마련한 것이다.
복(福)꾸러미를 받은 이용자 김모(62세, 지체장애)씨는 “설 명절 마다 복지관에서 챙겨줘 복지관은 내게 가족이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강병은 관장은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후원으로 복(福)꾸러미 나눔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도내 장애인의 정서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완산동 통우회, 설명절 맞이 대청소 실시

전주시 완산동 통우회는 직원 30여 명과 함께 훈훈한 설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주천서로 일대 일제대청소를 19일 실시했다.
이날 대청소는 고향을 찾는 귀성객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전주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청소는 '전주천 및 도로변, 이면도로, 버스승강장' 등 평소 청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의 각종 쓰레기 집중 수거, 분리수거대 정비로 진행했다.
특히 전주천서로 새벽시장(도개비시장)은 청소 취약지로 중점적으로 대청소를 실시했다.
박영배 통우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과 따뜻한 분위기에서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박종진 완산동장은 “명절을 맞아 대량의 생활폐기물 배출이 예상되고 있어, 생활폐기물 배출 시에는 정해진 장소에 분리배출해 주고, 종량제 봉투 사용의 생활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우정청, 설 명절 맞이 사랑나눔 후원물품 지원

전북지방우정청은 덕진구 큰나무종합사회복지관에 후원물품을 지원하는 사랑나눔 활동을 지난 18일 진행했다.
또 이날 행복나눔봉사단은 목거노인과 지역 소외 계층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김선물세트, 라면 등 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함께 전달했다.
김꽃마을 전북지방우정청장은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2023년에도 지역사회에서 우체국 공적 역할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하고 진정성있는 나눔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전했다.
우체국 행복나눔봉사단은 지난 해 소외계층 약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후원물품 지원, 연탄 배달 활동 등 봉사활동을 실시했으며, 올해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지역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